



자영업자 대상 상권 분석 서비스, 잇사이트(Eatsight)

경영빅데이터분석개론 5조

김지에 민경채 손수환 손주현 송채현

목차

1. 사업 소개
2. 데이터의 유형 및 특징
3. 데이터 수집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1. 사업 소개 및 비즈니스 가치

사업명: EatSi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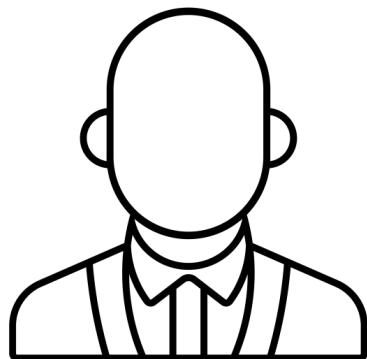
요식업 분야 개인사업가와 예비 창업자에게 특정 상권에 대한 분석 결과와 현재 음식 트렌드 정보 및 인사이트를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

대상 고객: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 및 예비 창업자 (예상 시장규모 각각 약 100만명, 550만 명)

신규 자영업자들이 창업을
위해 가장 우선적으로
준비하는 사항 (출처 통계청)

1위) 아이템 선정(35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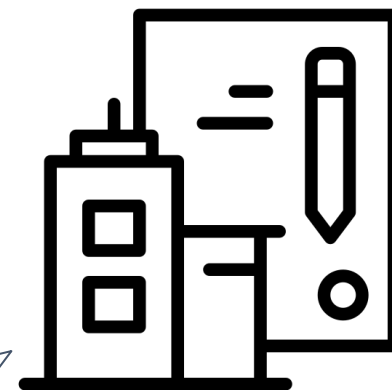
2위) 상권 분석(30.8%)



요식업 창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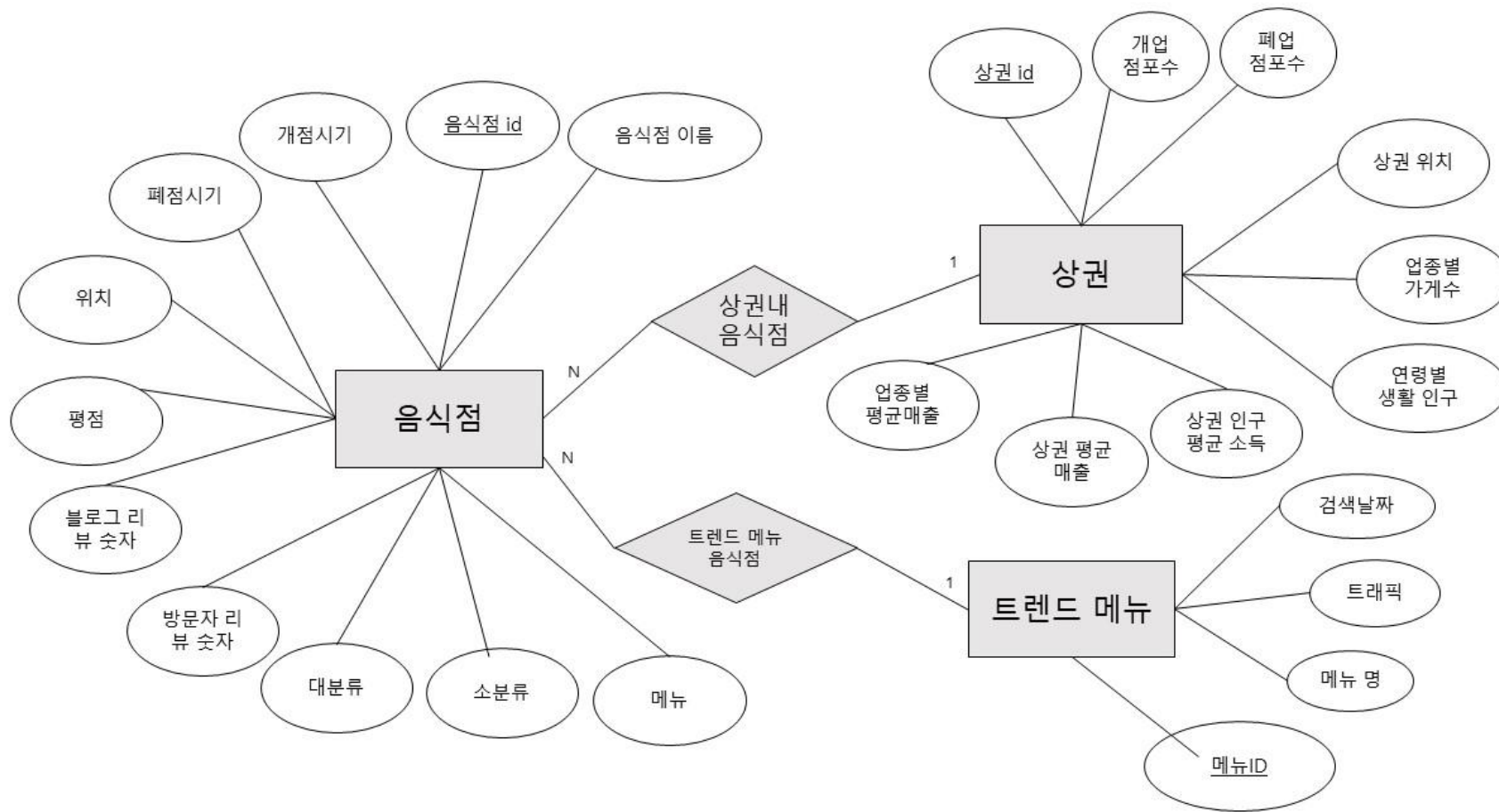
샤로수길에 중국집을
차리고 싶습니다.

최근 중식음식점의 트렌드 메뉴는 '마라'
입니다.
샤로수길의 경우 중식음식점이 다른 업종에
비해 **10% 많으며**
평균적으로 **15% 이상 좋은 평점**을 받고
있습니다.



EatSite

2. 데이터의 유형 및 특징



3. 데이터 수집

- 분석 상권 선정
 - 전통시장: 남대문시장, 도깨비시장
 - 발달상권: 연남동, 인사동, 샤로수길, 서래마을카페거리
- 데이터 수집 방법:
 - 공공데이터셋 다운로드(상권정보, 등록된 음식점 정보)
 - 네이버 지도 크롤링(음식점 평점, 리뷰, 메뉴 등)
 - 네이버 데이터랩 크롤링(트렌드 메뉴 검색 트래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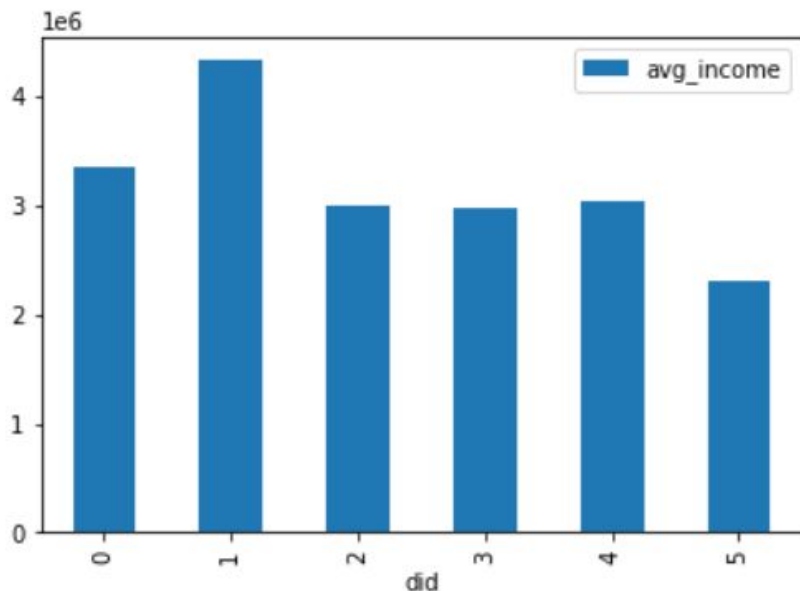
트렌드 메뉴 선정 기준:

각 업종별로 2015년 이후 개점한 음식점들의 메뉴분포와 전체 음식점의 메뉴 분포를 비교하여 등수가 3단계 이상 차이나는 메뉴들을 선정

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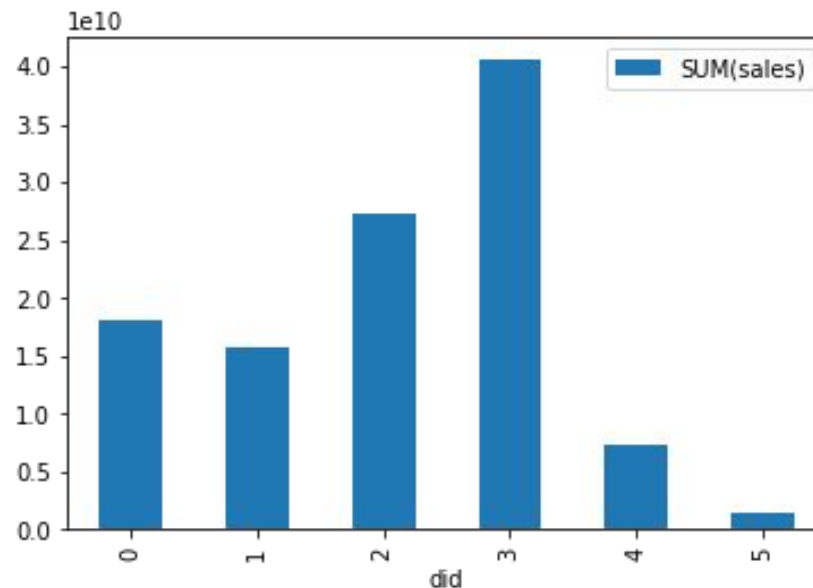
• 상권별 평균 소득 및 발생 매출 분석

- 평균 소득: 해당 상권 내 거주 인구의 추정 소득금액



- 서래마을카페거리가 가장 높게, 도깨비시장이 가장 낮게 나타남
- 나머지 4가지 상권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남

- 발생 매출: 카드사 집계, 해당 상권 내 점포에서 결제된 금액 합산



- 연남동이 가장 높게, 도깨비시장이 가장 낮게 나타남
- 소득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4가지 상권 간의 발생 매출 격차가 크게 나타남 →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 수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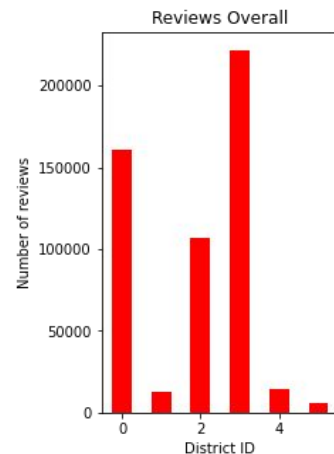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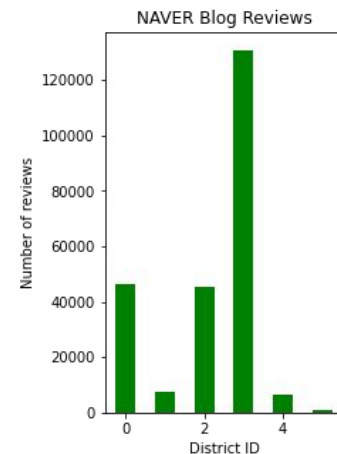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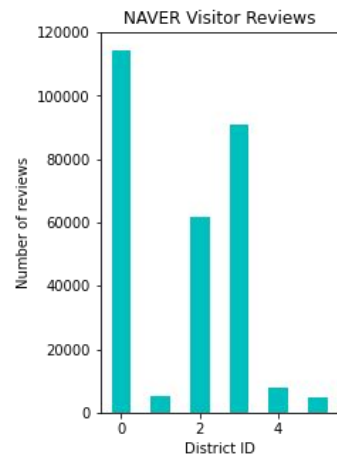
- 평균 소득 대비 발생 매출이 높은 상권은 거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· 상권별 리뷰 수 비교를 통한 상권별 인기도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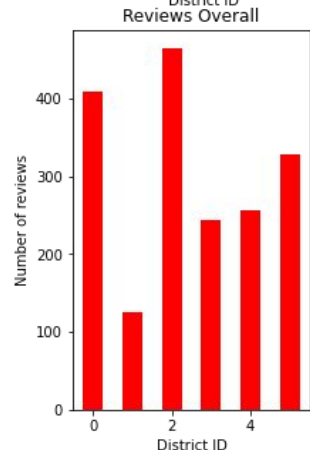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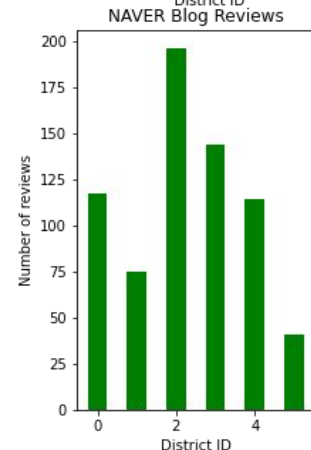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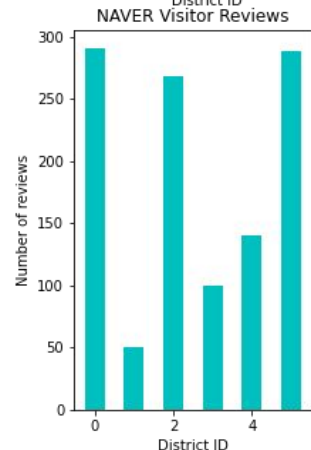
· 단순 리뷰 수 비교

- 연남동(홍대) : 방문자와 블로그 리뷰 수 각각 2위, 1위로 최상위권에 해당
- 인사동: 방문자 리뷰 수 기준 1위
- 전통시장 상권에 해당하는 남대문시장과 도깨비시장과 서래마을카페거리가 하위권에 분포



· 점포 수 대비 리뷰 수 비교

- 서울대입구역: 점포 수 대비 방문자와 블로그 리뷰 수 모두 상위권
- 인사동: 높은 방문자 리뷰 수 → 점포 수를 감안해도 상위권에 해당
- 공릉동 도깨비시장: 최하위권이었던 절대적 리뷰 수 순위와 큰 차이 → 점포 수가 너무 적어서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



⇒ 6가지 상권 중 서울대입구역, 연남동, 인사동을 인기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음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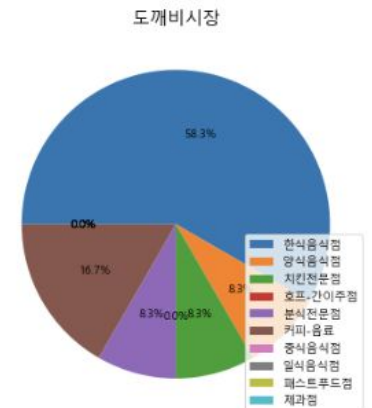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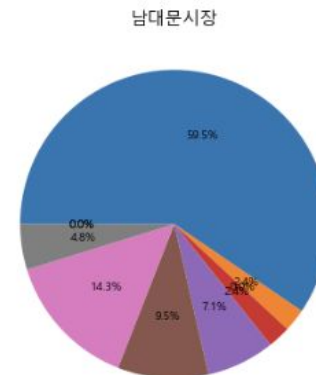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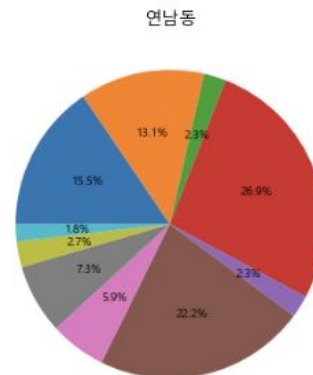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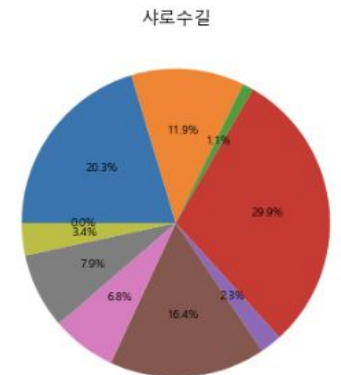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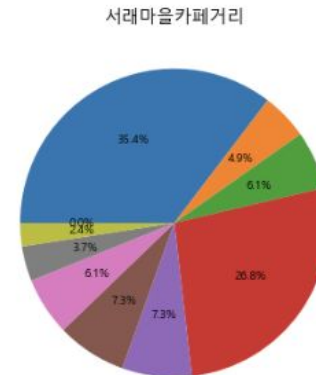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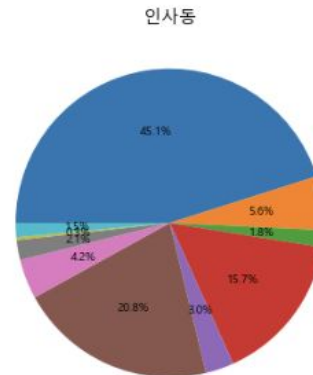
· 상권별 업종에 따른 업종 현황

-상권별로 현재 어떤 업종이 블루오션이고 레드오션인지 파악 가능

- 전통시장 상권에서 한식 음식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

- 샤로수길과 연남동의 경우, 주점과 카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
- 또한 상권별 다른 특성과 함께 분석하여 추가적인 정보 획득 가능

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- 상권별 성비, 각 연령대 인구 비율
 - 인사동의 경우 성비가 118.06으로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지만, 다른 5개의 상권은 모두 성비가 100을 넘지 않아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.
 - 연령대 인구 비율을 보면, 서래마을의 경우 10대 인구 비율이 유독 높고, 서울대입구역과 연남동은 20대 인구 비율이, 남대문시장과 도깨비시장은 60대 인구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을 알 수 있음.

<상권별 인구 정보>

	상권 이름	성비	10대 인구 비율	20대 인구 비율	30대 인구 비율	40대 인구 비율	50대 인구 비율	60대 인구 비율
0	인사동	118.06	4.86%	17.21%	20.96%	20.36%	16.91%	19.70%
1	서래마을카페거리(서래마을)	80.59	23.62%	9.12%	12.40%	19.98%	14.20%	20.69%
2	서울대입구역	91.71	7.28%	37.90%	20.59%	11.21%	9.72%	13.30%
3	연남동(홍대)	82.62	8.80%	30.18%	22.45%	15.56%	10.01%	12.99%
4	남대문시장(자유상가)	79.25	2.96%	13.64%	21.92%	20.54%	17.80%	23.14%
5	공릉동 도깨비시장	82.93	9.63%	21.63%	13.87%	12.47%	15.29%	27.12%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- 성비가 100을 넘는 인사동 vs 100을 넘지 않는 서래마을, 샤로수길, 연남동

- 성비가 100을 넘는 인사동은 한식 음식점이 많고 호프,간이주점이 적은 반면
- 성비가 100을 넘지 않는 서래마을, 샤로수길, 연남동은 한식 음식점이 적고 호프,간이주점이 많음.
- 성비에 따른 선호도(?)의 차이를 엿볼 수 있음.

	상권 이름	성비
0	인사동	118.06
1	서래마을카페거리(서래마을)	80.59
2	서울대입구역	91.71
3	연남동(홍대)	82.62

<상권별 한식음식점 비율>

인사동 한식음식점 비율 :	45.1 %
서래마을카페거리 한식음식점 비율 :	35.37 %
샤로수길 한식음식점 비율 :	20.34 %
연남동 한식음식점 비율 :	15.51 %
남대문시장 한식음식점 비율 :	59.52 %
도깨비시장 한식음식점 비율 :	58.33 %
상권 전체 한식음식점 비율 :	25.87 %

<상권별 호프-간이주점 비율>

인사동 호프-간이주점 비율 :	15.73 %
서래마을카페거리 호프-간이주점 비율 :	26.83 %
샤로수길 호프-간이주점 비율 :	29.94 %
연남동 호프-간이주점 비율 :	26.92 %
남대문시장 호프-간이주점 비율 :	2.38 %
도깨비시장 호프-간이주점 비율 :	0.0 %
상권 전체 호프-간이주점 비율 :	23.71 %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- 타 상권에 비해 유독 10대 비율이 높은 서래마을
 - 표를 통해 서래마을카페거리 생활인구 중 1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독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서래마을카페거리의 리뷰 수 비율은 타 상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, 평균 평점도 높지 않은 편임.
 - 10대 고객의 소비 후 패턴을 알 수 있음.

	상권 이름	성비	10대 인구 비율
0	인사동	118.06	4.86%
1	서래마을카페거리(서래마을)	80.59	23.62%
2	서울대입구역	91.71	7.28%
3	연남동(홍대)	82.62	8.80%
4	남대문시장(자유상가)	79.25	2.96%
5	공릉동 도깨비시장	82.93	9.63%

<상권별 평균 리뷰 수, 평균
평점>

	평균 리뷰 수	평균 평점
인사동	408.38	4.37
서래마을	125.50	4.39
샤로수길	464.46	4.48
연남동	244.28	4.53
남대문시장	255.52	4.30
도깨비시장	328.76	4.40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- 타 상권에 비해 유독 20대 비율이 높은 연남동, 샤로수길
 - 표를 통해 연남동, 샤로수길 생활인구 중 2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독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, 그러한 연남동과 샤로수길의 경우 타 상권에 비해 양식 음식점의 비율이 높음.
 - 20대 고객이 선호하는 음식점을 알 수 있음.

	상권 이름	성비	10대 인구 비율	20대 인구 비율
0	인사동	118.06	4.86%	17.21%
1	서래마을카페거리(서래마을)	80.59	23.62%	9.12%
2	서울대입구역	91.71	7.28%	37.90%
3	연남동(홍대)	82.62	8.80%	30.18%
4	남대문시장(자유상가)	79.25	2.96%	13.64%
5	공릉동 도깨비시장	82.93	9.63%	21.63%

<상권별 양식음식점 비율>

인사동 양식음식점 비율 : 5.64 %

서래마을카페거리 양식음식점 비율 : 4.88 %

샤로수길 양식음식점 비율 : 11.86 %

연남동 양식음식점 비율 : 13.08 %

남대문시장 양식음식점 비율 : 2.38 %

도깨비시장 양식음식점 비율 : 8.33 %

상권 전체 양식음식점 비율 : 10.35 %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- 대표 메뉴 가격 비교

- 샤로수길과 연남동에서는 한식음식점 비율이 낮는데, 대표 메뉴인 김치찌개의 가격이 평균보다 높음.
- 인사동에서는 호프-간이주점 비율이 낮는데, 대표 메뉴인 먹태의 가격이 평균보다 높음.
- 연남동에서는 호프-간이주점 비율이 높는데 대표 메뉴인 먹태의 가격이 평균보다 낮게 형성됨.

<대표 메뉴의 가격이 업종 평균과 2000 이상 차이나는 상권 정보>

('서래마을', '호프-간이주점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4000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1
('샤로수길', '한식음식점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3058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3
('연남동', '한식음식점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2391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3
('남대문시장', '중식음식점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2322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1
('인사동', '호프-간이주점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1750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4
('샤로수길', '생선요리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1188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1
('인사동', '고기구이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1110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1
('연남동', '생선요리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-1062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2
('남대문시장', '커피-음료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-1209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2
('남대문시장', '한식음식점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-1275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2
('인사동', '치킨전문점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-1400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1
('샤로수길', '양식음식점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-1488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2
('연남동', '호프-간이주점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-1572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7
('샤로수길', '중식음식점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-1678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1
('서래마을', '한식음식점')	대표 메뉴 가격 차이 -> -2025	대표 메뉴가 있는 음식점 수 -> 2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- Top 5 메뉴 의존도 (높은 곳)

- 업종을 기준으로 보면, 커피-음료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Top 5 메뉴 의존도가 높음.
- 상권을 기준으로 보면, 인사동은 간편식, 치킨전문점, 제과점, 중식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Top 5 메뉴 의존도가 높음.
- 이를 통해 업종 중에서는 커피-음료가, 상권 중에서는 인사동이 상대적으로 메뉴 다양성이 낮다고 추론할 수 있음.

<음식점 수 대비 Top 5 메뉴 수의 비율이 0.70이 넘는 곳 (음식점 수가 4개 이상인 곳만)>

('남대문시장', '커피-음료')	Top 5 메뉴 의존도 -> 1.75	Top 5 메뉴 수 -> 7	음식점 수 -> 4
('샤로수길', '패스트푸드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1.67	Top 5 메뉴 수 -> 10	음식점 수 -> 6
('인사동', '간편식')	Top 5 메뉴 의존도 -> 1.5	Top 5 메뉴 수 -> 6	음식점 수 -> 4
('남대문시장', '생선요리')	Top 5 메뉴 의존도 -> 1.27	Top 5 메뉴 수 -> 14	음식점 수 -> 11
('샤로수길', '커피-음료')	Top 5 메뉴 의존도 -> 1.17	Top 5 메뉴 수 -> 34	음식점 수 -> 29
('서래마을', '분식전문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1.17	Top 5 메뉴 수 -> 7	음식점 수 -> 6
('인사동', '치킨전문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83	Top 5 메뉴 수 -> 5	음식점 수 -> 6
('인사동', '제과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8	Top 5 메뉴 수 -> 4	음식점 수 -> 5
('연남동', '커피-음료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79	Top 5 메뉴 수 -> 136	음식점 수 -> 173
('인사동', '중식음식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79	Top 5 메뉴 수 -> 11	음식점 수 -> 14
('연남동', '제과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79	Top 5 메뉴 수 -> 11	음식점 수 -> 14
('인사동', '커피-음료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74	Top 5 메뉴 수 -> 52	음식점 수 -> 70
('인사동', '생선요리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73	Top 5 메뉴 수 -> 8	음식점 수 -> 11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- Top 5 메뉴 의존도 (낮은 곳)

- 업종을 기준으로 보면, 호프-간이주점이나 한식/양식 음식점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Top 5 메뉴 의존도가 낮음.
- 상권을 기준으로 보면, 연남동, 샤로수길의 경우 다른 상권에 비하여 여러 업종의 Top 5 메뉴 의존도가 낮음.
- 업종 중에서는 호프-간이주점과 한식/양식 음식점이, 상권 중에서는 연남동과 샤로수길이 메뉴 다양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.

<음식점 수 대비 Top 5 메뉴 수의 비율이 0.2보다 낮은 곳 (음식점 수가 4개 이상인 곳만)>

('서래마을', '한식음식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17	Top 5 메뉴 수 -> 5	음식점 수 -> 29
('인사동', '양식음식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16	Top 5 메뉴 수 -> 3	음식점 수 -> 19
('샤로수길', '양식음식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14	Top 5 메뉴 수 -> 3	음식점 수 -> 21
('연남동', '호프-간이주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13	Top 5 메뉴 수 -> 28	음식점 수 -> 210
('연남동', '간편식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12	Top 5 메뉴 수 -> 1	음식점 수 -> 8
('샤로수길', '해외요리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09	Top 5 메뉴 수 -> 1	음식점 수 -> 11
('연남동', '한식음식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08	Top 5 메뉴 수 -> 10	음식점 수 -> 121
('연남동', '해외요리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06	Top 5 메뉴 수 -> 2	음식점 수 -> 36
('서래마을', '호프-간이주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05	Top 5 메뉴 수 -> 1	음식점 수 -> 22
('샤로수길', '호프-간이주점')	Top 5 메뉴 의존도 -> 0.04	Top 5 메뉴 수 -> 2	음식점 수 -> 53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어떤 업종에서 신규 점포 개업이 활발할까? → 신규 창업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

2017년 기준 고성장 업종: ['양식음식점', '일식음식점', '제과점', '해외요리'] : 15.53% 이상 성장
2017년 기준 일반 업종: ['고기구이', '중식음식점', '커피-음료', '패스트푸드점', '호프-간이주점']
2017년 기준 저성장 업종: ['분식전문점', '생선요리', '치킨전문점', '한식음식점'] : 9.51% 이하 성장

2018년 기준 고성장 업종: ['양식음식점', '제과점', '패스트푸드점', '해외요리'] : 18.58% 이상 성장
2018년 기준 일반 업종: ['분식전문점', '일식음식점', '치킨전문점', '커피-음료', '호프-간이주점']
2018년 기준 저성장 업종: ['고기구이', '생선요리', '중식음식점', '한식음식점'] : 9.15% 이하 성장

2019년 기준 고성장 업종: ['고기구이', '커피-음료', '패스트푸드점', '해외요리'] : 10.72% 이상 성장
2019년 기준 일반 업종: ['분식전문점', '생선요리', '양식음식점', '일식음식점', '호프-간이주점']
2019년 기준 저성장 업종: ['제과점', '중식음식점', '치킨전문점', '한식음식점'] : 5.21% 이하 성장

2020년 기준 고성장 업종: ['제과점', '커피-음료', '패스트푸드점', '호프-간이주점'] : 10.73% 이상 성장
2020년 기준 일반 업종: ['분식전문점', '생선요리', '양식음식점', '한식음식점', '해외요리']
2020년 기준 저성장 업종: ['고기구이', '일식음식점', '중식음식점', '치킨전문점'] : 4.7% 이하 성장

2021년 기준 고성장 업종: ['제과점', '커피-음료', '패스트푸드점', '호프-간이주점'] : 11.28% 이상 성장
2021년 기준 일반 업종: ['고기구이', '생선요리', '양식음식점', '일식음식점', '해외요리']
2021년 기준 저성장 업종: ['분식전문점', '중식음식점', '치킨전문점', '한식음식점'] : 4.29% 이하 성장

2022년 기준 고성장 업종: ['제과점', '치킨전문점', '패스트푸드점', '호프-간이주점'] : 5.01% 이상 성장
2022년 기준 일반 업종: ['생선요리', '양식음식점', '일식음식점', '중식음식점', '커피-음료']
2022년 기준 저성장 업종: ['고기구이', '분식전문점', '한식음식점', '해외요리'] : 1.24% 이하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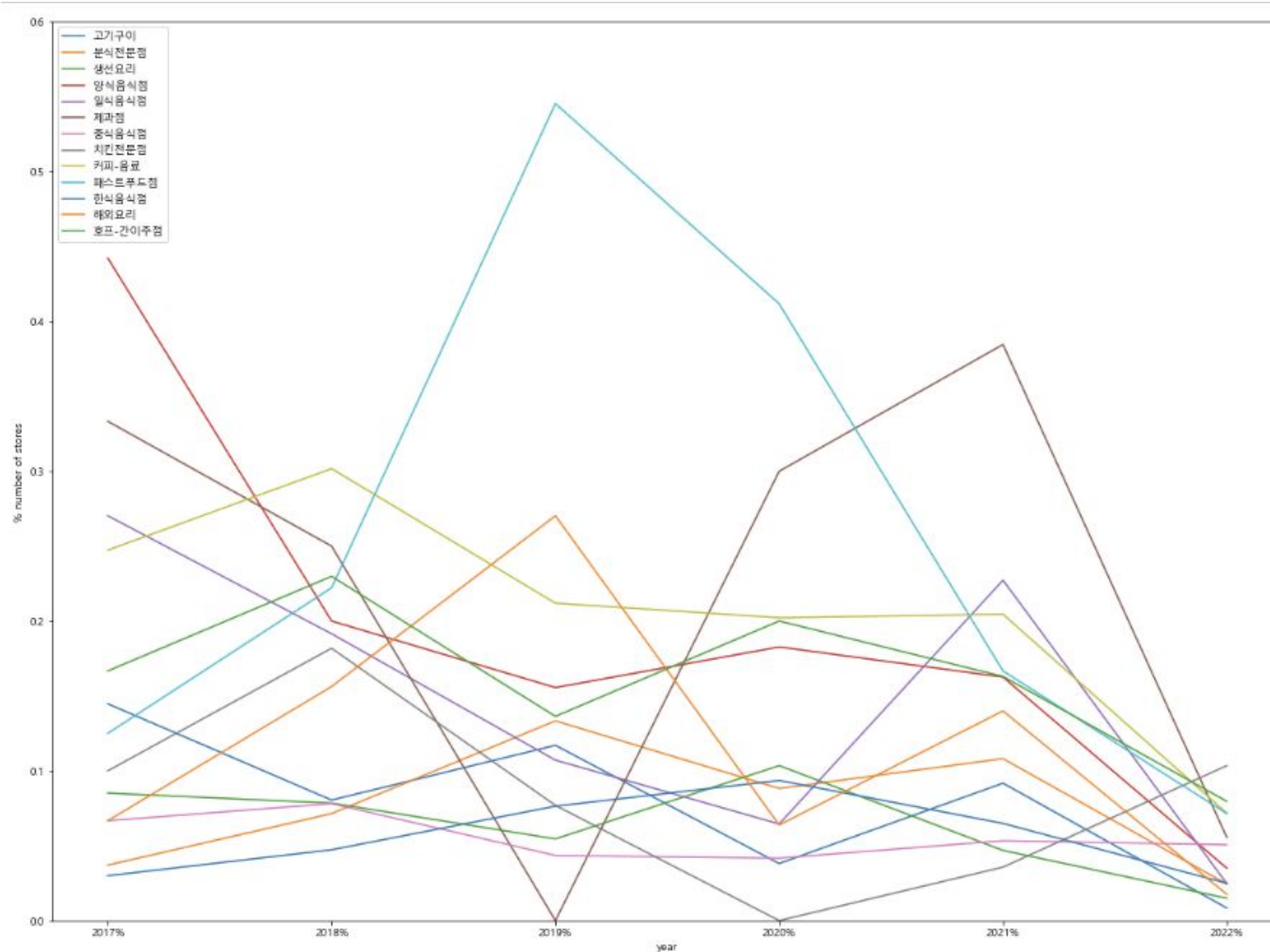
전체 점포 수 대비 신규 개업
점포 수 비율을
기준으로 업종 성장성 파악

상위 30%의 점포 확대를 보인
업종을 고성장 업종으로,

하위 30%의 점포 확대를 보인
업종을 저성장 업종으로 정의.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어떤 업종에서 신규 점포 개업이 활발할까? → 신규 창업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



대부분 2020~2021 동안
신규점포 성장세가
감소했으나,

커피-음료와 패스트푸드점이
꾸준히 성장해온 점이 눈에 띄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어떤 업종의 점포들이 길게 생존할까?

폐업 데이터가 존재하는 점포 대상 생존 일자 분석 실시

```
category
고기구이          4603 days 00:00:00
분식전문점        4115 days 12:50:42.253521152
양식음식점        2584 days 06:49:50.769230784
일식음식점        2434 days 17:50:16.216216224
중식음식점        3339 days 12:42:21.176470592
치킨전문점        3050 days 09:13:50.769230784
커피-음료          2090 days 09:40:00
한식음식점        3480 days 09:06:05.688487616
해외요리          878 days 15:43:26.896551728
호프-간이주점     2184 days 13:11:21.081081088
Name: diff, dtype: timedelta64[ns]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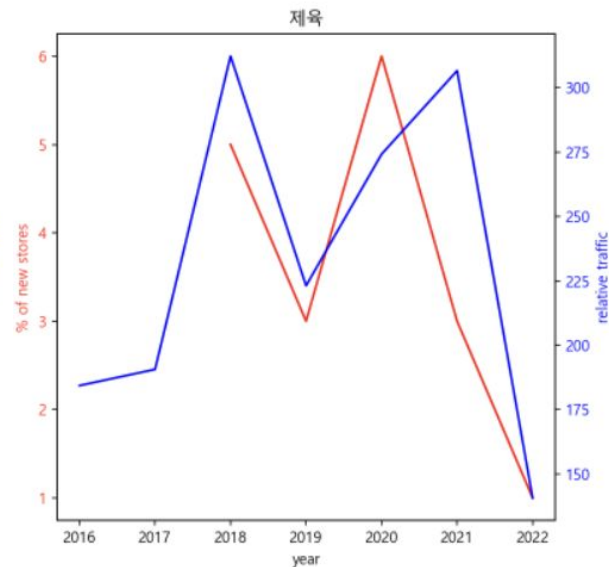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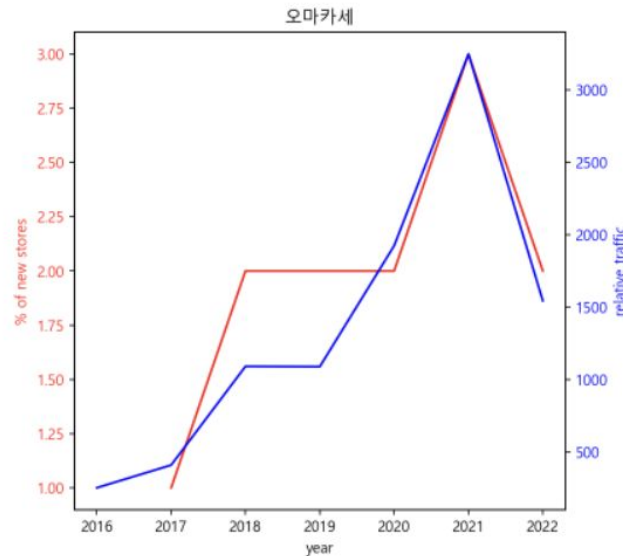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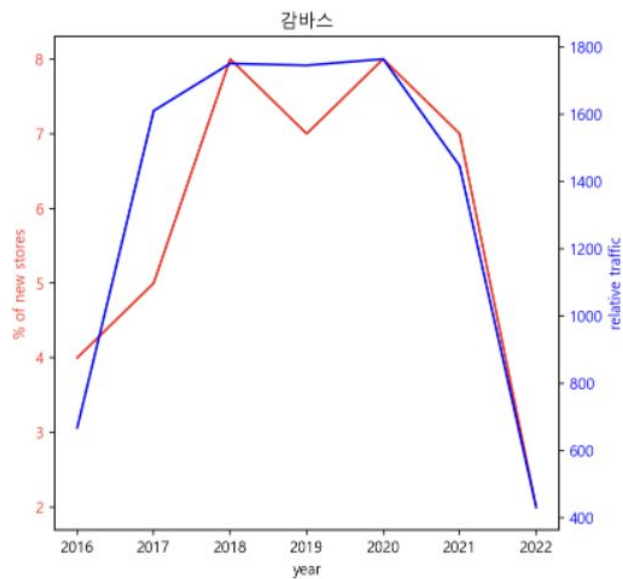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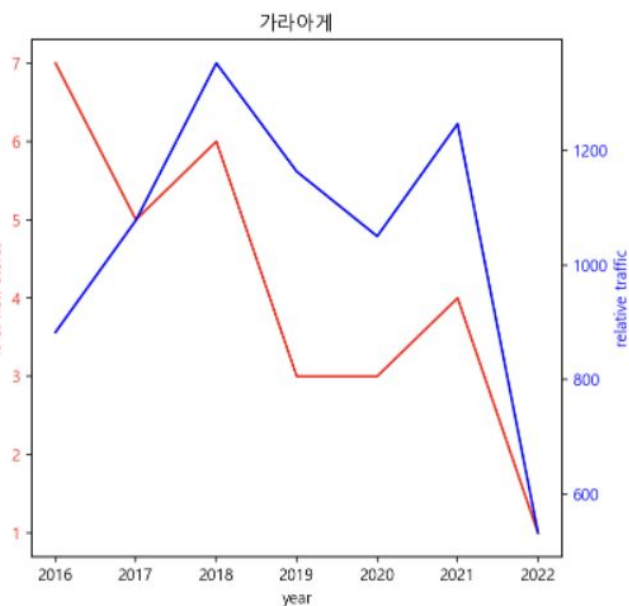
고기구이-분식-한식-중식-치킨-양식-
일식-호프-카페-해외요리 순으로 오래
생존함

특히 커피집의 경우 신규 점포 성장세는
꾸준히 높았으나 생존 기간은 길지 않은
것으로 파악됨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트렌드 메뉴의 트래픽과 신규 개업 점포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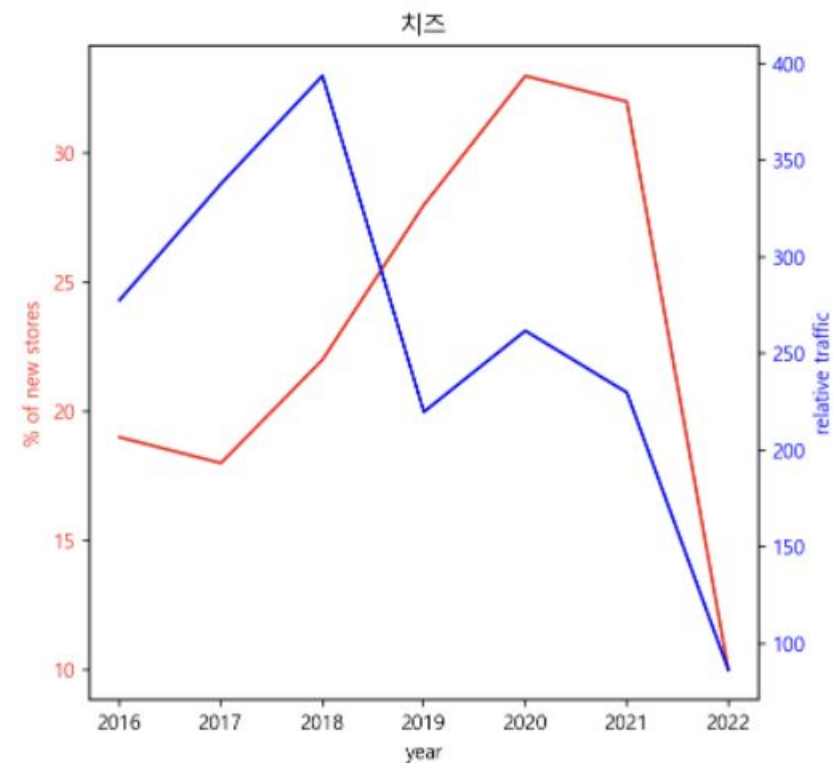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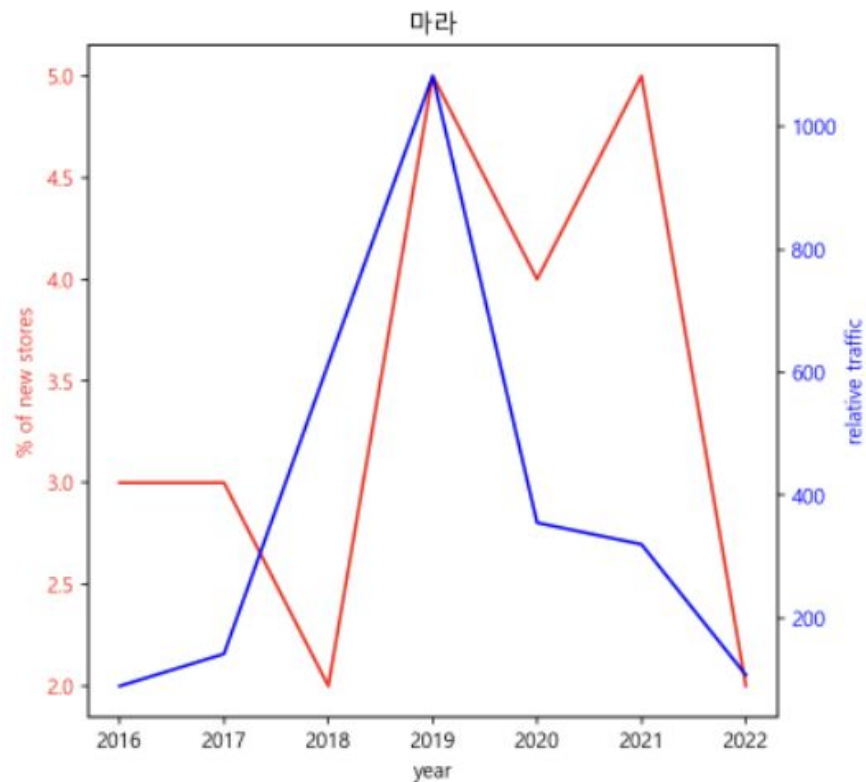
검색 트래픽과 개업 점포 수가 유사한 경우

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트렌드 메뉴의 트래픽과 신규 개업 점포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까?

검색 트래픽 증가가 선행하고, 점포 수 증가가 따라오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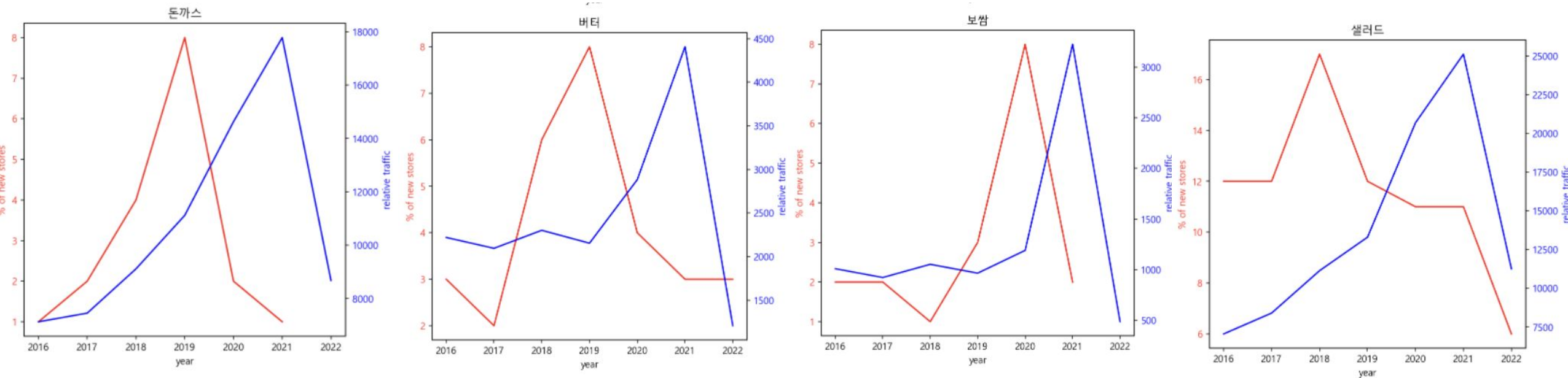


특히 마라의 경우 트래픽은 점차 줄고 있으나 개업 점포는 계속해서 늘고있음

4.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

트렌드 메뉴의 트래픽과 신규 개업 점포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까?

점포 수가 먼저 증가하고, 검색 트래픽이 따라서 증가한 경우



샐러드는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하는데
반해 신규 점포수는 줄고있음